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권과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사무총장 채 명 성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홈페이지: www.hanbyun.kr

한변, 「올인모」의 『화요집회』 적극 참여키로

- 10년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o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아래와 같이 시작하는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화요집회)에** 적극 참여키로 함

-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1:30-12:30 (제1회 화요집회)
- 장소: 국회 정문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

o 「화요집회」는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11:30-12:30 사이에 정기적으로, 국회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무기한 실시. 집회 도중 또는 전후하여 관련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직접 국민의 의견도 전달 예정. **제1회 「화요집회」**는 2014. 10. 14. 시작. 집회에는 사회 저명인사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염원하는 분이면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화요집회의 배경]

o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7일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그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권고

o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추인하였고, 지난 5월에는 유엔 현장기반조직의 한국 설치가 확정

o 9월 23일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 기간 사상 최초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한국, 일본, 호주의 외무장관들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를 열

고 COI 권고를 이행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문 채택을 추진키로 합의

o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게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

o 10월 8일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작성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그 채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됨

o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차가운 무관심 상태에 있음. 그러나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국내문제와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권문제로서 중요함. 진정한 통일준비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얻는 것임

o 특히 북한인권법은 생명권 등 기초적인 인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서,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째 그 입법을 방치하고 있고, 현재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이 대치되어 답보상태에 있음

o 새누리당안은 COI 권고와 같이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과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구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인도적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대규모 대북지원에 치중함. 이는 이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있어 불필요하고 혼란만 초래할 법안들임

o 이에 「한변」과 「올인모」는 더 이상 국회의 무관심과 무성의, 무능력을 묵과할 없어 국회에 대한 압박과 대국민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화요집회」**를 시작하기로 하였음

2014년 10월 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